

의미 이론과 메타윤리학

이 우 램

(서울대학교 철학과)

I. 서론

규범 윤리학은 선, 옳음, 정의 또는 당위가 무엇인지를 직접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규율할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반면에 메타윤리학은 올바른 규범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일단 괄호를 친 후,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과연 이러한 판단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학문이다.

메타윤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도덕 판단이 지닌 듯한 객관성(objectivity)의 본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가령, 살인은 악한가? 우리의 일상적 직관은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살인이 악하다는 도덕 판단은 객관적으로 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도덕 판단이 객관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직관이다.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이 객관성을 세계에 근거지우는 방식은 바로 도덕 판단이 도덕적 사실에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사실의 존재는 그리 자명하지 않다. 맥키(J. L. Mackie)의 표현을 빌리면,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실과 다른, 매우 “기이한” 종류의 존재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덕적 사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도덕적 사실은 다른 사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살인은 관찰 가능한 행위지만 악함은 관찰할 수 없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제시된 인식의 수단은 직

관이었으나, 과연 이러한 인식 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한 의심스럽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론적·인식론적 문제를 인정하면서 도덕적 사실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 경우 도덕 판단이 객관적인 진리치를 확보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의미의 사실 판단이 그 객관적 진리치를 확보하는 방식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도덕적 사실이 없다면 도덕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는 우리의 직관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자명한 것처럼 보였던, 살인은 악하다는 도덕 판단이 주관적인 것으로, 거짓인 것으로,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이 논문의 한 가지 목표는, 의미의 본성에 관한 언어철학적인 물음과의 관련 하에서 도덕 판단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을 비교·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 판단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 궁극적으로 그 의미에 대한 물음인 이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어 일반에 대한 의미 이론(theory of meaning)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기본적 가정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에이어와 카르납의 검증주의 의미 이론과 정의주의(emotivism), 오스틴의 화행 이론과 헤어의 처방주의,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도덕실재론이 다루어진다. 다른 한 가지 목표는, 우리의 도덕적인 경험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 이론과 메타윤리학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도덕적 경험은 어느 정도 자명한 두 직관, 즉 1) 도덕 판단이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다른 판단과 달리 화자의 태도나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직관과 2) 도덕 판단이, 만약 참이라면 객관적으로 참이라는 직관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다른 기본 가정이다.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도덕적 논의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과 정의주의(Emotivism)

1. 카르납의 의미 이론과 정의주의

카르납이 제시한 유의미성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명제에 이론적 의미(theoretical meaning)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명제]에 수반하는 심상이나 사고가 아니라, 지각적 명제들로부터 그것을 연역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검증의 가능성이다.”¹⁾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명제들은 모두 이론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윤리학을 일련의 규범적 주장들의 집합으로 간주할 때, ‘살인은 악하다’는 가치 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카르납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한 용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검증될 수 없다. 그런데 살인의 악함은 지각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에 관한 문장과 논리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카르납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의 주된 공격 대상은 형이상학의 진술들이었다. 카르납은 ‘살인은 악하다’와 같은 진술은, 단정적 명제(assertive proposition)의 문법적 형식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가치 진술은 오도적인 문법적 형식을 지닌 명령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²⁾ 윤리학의 언어는 이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의 언어와 거의 동질적이다.

카르납은 동시에 형이상학·윤리학의 진술들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표현한다”³⁾고 말한다.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르납에 따르면 언어에는 크게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과 표상적 기능

1) Carnap, R. *Philosophy and Logical Syntax*, New York: AMS Press, 1979, p. 14.

2) Ibid., p. 24.

3) Ibid., p. 27.

(representative function)이 있다. 실제로 우리 언어 속의 다양한 언사들이 마치 웃음이나 얼굴을 찌푸리는 것과 같이 표상적 기능 없이도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경험과학의 언어들은 표상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것이 명제의 이론적 의미를 구성한다.

2. 에이어의 의미 이론과 정의주의

에이어에 따르면, “한 문장은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가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를 지닌다.”⁴⁾ 따라서 한 문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에이어는 일단 윤리적 가치 진술이 경험적 사실의 진술들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만약 우리가 ‘선’과 같은 윤리적 술어가 ‘쾌락’, ‘행복’ 내지 ‘다수에 의해 승인된 것’과 같이,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성질들을 가리킨다는 고전적인 자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언급된 성질들이 관찰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도덕 판단을 사실적 명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어는 이러한 환원 또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지적한다.

“우리는 한 행위가 옳다, 혹은 한 사물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주관주의적 견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행위들이 옳지 않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사물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자기모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⁵⁾

4) Ayer, A. J. *Language, Truth and Logic*,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5, p. 17. (이하 ‘LTL’)

5) Ibid., pp. 138-139. 이 논변은 무어(G. E. Moore)의 열린 물음 논변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가치어가 사실적 용어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해서 도덕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선과 같은 것이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어가 윤리학적 절대주의자(absolutist)처럼 가치에 관한 진술들이 관찰이 아닌, 신비스러운 지적 직관에 의해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직관을 통해 확보한 명제가 다른 형이상학적 진술과 마찬가지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A가 직관을 통해 P를 주장하고, B 또한 직관을 통해 -P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주장이 참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직관에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직관예의 호소는 한 명제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데 쓸 가치가 없다.”⁶⁾

자연주의적 접근과 절대주의적 접근을 모두 거부한 에이어에게, 도덕 판단은 검증 원리에 비추어볼 때 무의미하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들은 문자적 의미나 사실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단지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관련된 윤리적 단어의 기능은 순수하게 ‘정의적’(emotive)이다.”⁷⁾

이 주장은 윤리적 언어가 정의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정의주의는 윤리학적 주관주의(subjectivism)와 혼동되기 쉬우나, 주관주의의 주장대로 도덕 판단이 심리적 상태를 기술(describe)하고 있다면, 그것은 검증 가능하며 진리조건을 지닐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의주의의 주장과 상반된다. 정의주의의 주장은 우리가 도덕 판단을 통해 실제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드러낸다는 주장이지, 일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굳이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품 또는 탄식 등으로 지루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행위에 속한다. 이후에 사용될 표현을 빌리면, 두 가지는

6) Ibid., p. 141.

7) Ibid., p. 143.

8) Ibid., p. 145.

서로 다른 화행(speech act)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루어 볼 때,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으로부터 정의주의가 논리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증주의가 정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증주의는 도덕 판단에 정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3. 정의주의와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 비판

검증 원리에 의하면 규범 윤리학의 진술들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규범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성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규범학으로서의 윤리학이 성립 가능하지 않다면 윤리학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술릭(M. Schlick)의 말대로, 과학으로서의 윤리학은 규범이나 가치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을 추구한다.⁹⁾ 그러나 이 이 경우, 윤리학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으로 포섭될 것이며, 윤리학의 물음은 더 이상 ‘A라는 도덕 판단은 보편 타당한 것인가?’와 같은 형태를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물음은 ‘A라는 도덕 판단 또는 규범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보편적으로 용납되는가?’ 또는 ‘A라는 도덕 판단 또는 규범은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용납되는 것인가?’와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볼 때,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을 따를 경우 우리가 규범학으로서의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요컨대, 규범학으로서의 윤리학의 부정은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의미 이론이 모든 언어가 지닌 의미의 본성을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 이러한 이론의 대가로 우리는 윤리학에 대한 파산 선고로 감수해야 할

9) Schlick, M. "What is the Aim of Ethics?", in Ayer, A. J. (ed.) op. cit., p. 261.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이 완벽한 의미 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콰인(W. V. O. Quine)은 이미 논리 실증주의가 두 가지 독단적 전제에 의존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의미 이론임을 비판한 바 있다. 원칙적 검증주의자들에게 “하나의 용어가 도대체 유의미한 것이라면, 그것이 감각 소여(sense datum)의 이름이거나 그러한 이름들의 합성이거나, 그러한 합성물의 축약(abbreviation)이어야 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분석판단/종합판단의 이분법과 더불어 경험주의의 독단적인 전제 위에 성립한 입장이다. 그 전제는 “각각의 유의미한 진술은 직접적 경험을 지시하는 용어들의 논리적 구성물과 등가”라는 환원주의적 전제이다.¹¹⁾

2) 정의주의의 의의와 한계

정의주의의 핵심적 주장, 즉, 도덕 판단이나 도덕 판단이 우리의 태도와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정서 또는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도덕 판단을 통해 단순히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순수하게 인식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행위를 인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도덕 판단이 인지적 태도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인지적이지만은 않은 태도를 불가피하게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 충분히 부합한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케나(W. K. Frankena)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단지 사실적인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찬성이나 반대의 태도를 취

10) Quine, W. V. O.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New York: Harper & Row, 1963, p. 38.

11) *Ibid.*, p. 20. 그러나 콰인은 “경험의 심판대”라는 경험주의적 토대를 아예 저버리지는 않는다. 다만 그 경험의 심판대 위에 오르는 것이 개별적인 진술들이 아니라 과학 전체(the whole of science)라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우리가 'X는 좋다'거나 'Y는 옳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추구되거나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¹²⁾

그러나 정의주의의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박탈한다는 바로 그 주장 때문에 정의주의자들은 '살인은 나쁘다'라는 도덕 판단에 관해 사람들이 보이는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를 설명해야 할 부담을 진다. 그 도덕 판단이 참이 아니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판단에 동의를 표시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도덕적 논의는 분명히 인지적(cognitive) 논의의 징표를 담지하고 있지 않은가?

3) 프레게-기취 문제와 정의주의적 응답

프레게-기취 문제는 정의주의가 도덕적 논의에서 모든 진리조건을 박탈한다는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으로는 명백히 타당한 논변의 타당성조차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취(P. T. Geach)에 따르면, "한 명제는 주장된 채로, 또는 주장되지 않은 채로 논의에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명제일 수 있다."¹³⁾ 이 논점이 정의주의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이 나쁘다면, 당신의 동생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나쁘다.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은 나쁘다.

따라서, 당신의 동생에게 고양이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나쁘다.

이 논변은 전건 긍정법($P \rightarrow Q; P; \therefore Q$)에 의해 명백히 타당한 논변이다. 그런데 이 논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위 논변에 나타난 네 가지

12) 윌리엄 K. 프랑케나 지음, 황경식 옮김,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p. 230.

13) Geach, P. T. "Asser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4, 1965, p. 449.

‘나쁘다’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각각의 ‘나쁘다’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위의 논변은 다의성(equivocation)의 문제 때문에 타당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대전제의 ‘나쁘다’가 조건문의 일부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장되지 않은 채 나타난 반면, 소전제와 결론의 ‘나쁘다’는 주장된 채 나타났다는 데 있다. 정의주의자들에 따르면 주장된 채 나타난 ‘나쁘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것이며, 따라서 정의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전제의, 즉 삽입 문맥 속에 있는 ‘나쁘다’는 전혀 정의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¹⁴⁾ 이 경우 정의주의자들은 ‘나쁘다’의 다의성 때문에 이 논변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프레게-기취 문제는 삽입 문맥 속에 나타난 가치어가 정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삽입 문제(embedding problem)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를 더욱 근본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의주의자들은 가치어를 포함한 모든 진술들을 무의미하다고, 즉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나의 명제가 그 정의상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존재자인 이상, 가치 판단은 진정한 명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논변은 명제가 아닌 것들로 구성된 논변이다. 그런데 논변의 타당성은 전제들의 진리치와 결론의 진리치를 통해 정의된다. 그렇다면 이 논변은 어떻게 타당할 수 있는가?

정의주의자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응답할 때 블랙번(S. Blackburn)의 대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블랙번은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도덕 판단들이 서술적이기보다는 표현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의주의의 핵심적인 논제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게-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랙번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논리적 연결사로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들을 언급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먼저 고찰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14) Ibid., pp. 463-464.

는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고 태도를 표현하는 입장(commitment)과 진리 조건을 지니는 믿음을 ‘그리고’로 연결하기도 한다. 우리가 논리학에서 ‘&’를 쓰는 것보다 덜 엄격한 방식으로 접속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그리고’는 “각각의 요소들이 수용될 경우에만 수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입장을 낳는 입장들을 연결한다.”¹⁵⁾

문제의 조건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조건문을 쓸 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블랙번은 “믿음이라는 투입값으로부터 태도라는 산출값으로의 함수”로 정의되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bility)의 개념을 도입한다.¹⁶⁾ 사람마다 서로 다른 도덕적 감수성을 지니지만, 그 감수성들 사이에는 우열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을 시인하는 태도와 내 동생에게 고양이를 괴롭히게 하는 것을 부인하는 태도를 짝짓는 감수성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부인하는 감수성을 승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문의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승인하는 것을 표현한다.” 하나의 조건문이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블랙번은 정의주의를 구제하는 것 같다.

블랙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는 내가 부인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동시에 시인하는 사태이다. 올바른 감수성은 일관성을 존중하는 감수성일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그의 태도들이 충돌할 것”이며(이것은 곧 그의 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수성으로는, 사물이나 사람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블랙번은 자신이 앞서 예시된 조건문의 실제 모습을 드러냈다고 믿는 것 같다. 조건문은 여전히 도덕적 태도의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레게-기취 문제가 제기했던 논리적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조건문을 포함한 논변에 나타난 도덕적 입장들을 마치 사실에 관한 판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참

15) Blackburn, S. *Spreading the Wor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p. 191-192. (이하 ‘SW’)

16) Ibid., p. 192.

17) Ibid., p. 195.

또는 거짓을 논하며, 이러한 입장들이 포함된 논변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적합한 표현의 형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이것이 태도를 세계에 ‘투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이다.”¹⁸⁾

그렇다면 블랙번은 예시된 논변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는가? 블랙번은 분명히 태도의 비일관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전제로서 나타난 입장들을 수용하면서도 결론에 나타난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가 태도의 비일관성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가?

논리적 연결사들에 해당하는 접속사들을 통해 우리가 본래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먼저 고찰하려는 것이 블랙번의 원래 전략이었다. 이 결과, 보통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쓰이는 ‘일관성’의 개념 역시 느슨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논리적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¹⁹⁾가 아니냐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해, 블랙번이 만약 우리가 도덕적 실패라고 부르는 것과 논리적 실패라고 부르는 것의 외연이 결국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블랙번 자신도 지적하듯이 그의 설명이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 아니라 임시변통(ad hoc)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가 논변의 타당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로지 그 논변이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일 뿐이다. 가치어를 포함하지 않은 명제들로 이루어진 논변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는 표준적인 타당성의 정의에 의해 설명할 것이다. 이 경우, 조건절의 의미는, “그것들이 도덕적 기능어(operator)들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애매해질 것이다.……그리고 이 애매성이 요청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준-실재론[정의주의의 일종으로서]을 구체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²⁰⁾

18) Loc. cit.

19) Miller, A.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Meta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 63.

20) Ibid., pp. 98-99. 블랙번의 논변보다 더욱 일반론적인 논변을 제공하는 기

물론 이 지적은 블랙번의 설명이 완전히 그르다는 지적이 아니라 설명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의주의자와 달리, 문장이 주장되었을 때나 주장되지 않았을 때나 동일한 내용을 지닌다고 믿는 사람들은 물론 사실 판단으로 구성된 논변과 가치 판단으로 구성된 논변 모두에 일관적인 설명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블랙번의 설명보다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블랙번의 설명은 오직 고전적인 정의주의에서 기각된 전제를 수용함으로써 완성되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적 감수성에 질적인 우위가 있다는 전제이다. “우리가 감수성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 그리고 어떤 감수성들은 승인하고 다른 감수성들은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²¹⁾ 그러나 예이어에 따르면 우리와 다른 도덕적 감수성을 가진, 즉 동일한 믿음으로부터 다른 태도를 산출하는 사람

바드(A. Gibbard)의 규범-표현주의(Norm-Expressivism)에서는 “옳다” 또는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기능어가 “……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바뀌 쓰일 수 있고, 이는 다시 “……가 N[특정한 규범 체계]에 의해 금지된다[허용된다, 요구된다 등]”로 바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가 N에 의해 허용된다”는 규범 판단이 아니라 서술 판단이다. 따라서 규범 판단이 “ $\langle w, n \rangle$ ”이라고 표현되는 “사실적-규범적 세계”(factual-normative world)[일정한 사실적 믿음과 그에 해당하는 규범에 대한 믿음이 갖춰진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은, 규범 판단 S 가, 그것이 해당하는 N -내용술어로 바뀌 쓰여진 서술 판단 S_n 이 w 에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삽입된 문맥 속에 포함된 가치어도 의미의 변화 없이 바뀌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레게-기취 문제는 해결된다. 이 경우, 가치 판단을 포함한 논변은 전제들이 성립하는 모든 $\langle w, n \rangle$ 에서 결론이 성립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타당하다. 사실 판단만을 포함한 경우에는 $\langle w, n \rangle$ 에서 n 을 빼고 동일한 타당성의 정의를 내리면 되기 때문에, 단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타당성을 정의하는 데 다른 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임시변통의 문제도 해결된다. 기바드의 논의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 또한 표현주의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논변 역시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래 형태의 정의주의에서 수용되지 않는 전제, 예컨대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랙번의 논변보다 크게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는 않는 것 같다. 자세한 논의는, Gibbard, A. *Wise Choices, Apt Feeling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86-99 참조.

21) Blackburn, S. op. cit., p. 192.

들을 합리적 논변으로 설득할 수 없다. 가치는 감정의 문제이며, 특정한 태도가 다른 태도에 대해 우위를 지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어 식의 정의주의만으로 프레게-기취 문제에 응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III. 화용론적 의미 이론과 처방주의

1. 화용론적 의미 이론-오스틴을 중심으로

화행 이론은 단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위”를 “화행을 수행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기호, 단어 또는 문장의 산출 또는 표출(issuance)”로 삼는 이론을 말한다.²²⁾ 오스틴과 쉘의 화행 이론이 지니는 커다란 의의 중 하나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사실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라고 여겨진, 따라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의 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다고 여겨진 진술문(statement)²³⁾과, 그들이 수행문(performative)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분법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화행 이론은,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것 역시 결국 다양한 화행 중 하나이며, 따라서 그것이 일종의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중심으로 오스틴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스틴이 수행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주된 특징은,

(1) 그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사실

22) Searle, J. R.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16. (이하 ‘SA’)

23) 오스틴은 ‘진술문’이라는 표현과 함께 ‘constative’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constative’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렵거나, 오스틴 자신도 두 표현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constative’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참이나 거짓인 진술문이 기술(description)은 아니기 때문”(HDW, 3)이라는 이유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i) 사태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 (ii) 참이나 거짓이라는 점을 진술문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하고, ‘진술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로 확인(constate)하지 않으며 참이나 거짓이 아니다.

(2) 이 문장들을 발화함은 어떤 행동을 행함이거나 그 행동을 행함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지 않을 것이다.²⁴⁾

어떤 행위에 대해 그것이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울 것이다. 수행문은 그것의 발화를 통해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참과 거짓의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행동은 참이나 거짓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것이 낫다. 앞서 밝힌 바, 말들은 적절한 여건 속에서 발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잘 안 되어 행동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한 발화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오히려 우리는 이 경우 이 발화가 부적절하다(unhappy)라고 말해야 한다. 오스틴은 이것을 “부적절함의 교리”(doctrine of the *Infelicities*)라고 부른다.²⁵⁾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정의주의자들에게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도 오스틴이 말하는 수행문의 존재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틴이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수행문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말함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미 그들이 윤리적 언사들에 관해 정의주의를 주장할 때 이미 선택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카르납이라면 어떤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유사-진술이라 부르고, 진정한 진술에 관해서는 검증 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오스틴의 논의가 검증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진술문과 대비되는 수행문의 존재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진술문과 수행문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드러내야 한다.

24)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1962, p. 5.

25) Ibid., p. 14.

그렇다면 수행문과 진술문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나의 발화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수행적 발화가 적절하려면, 그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하는 진술문들 역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만 한다.²⁶⁾ 그의 지적대로, 수행문의 적절함 또는 부적절함에 대한 고려와 진술문의 참 또는 거짓에 대한 고려가 쌍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양자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은 이미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오스틴은 수행문을 진술문으로부터 구별해 줄 문법적 기준(grammatical criterion)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법적 형태를 지닌 수행적 발화가 궁극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형태를 지닌 명시적 수행문(explicit performative)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함이 곧 행함이라는 그의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할 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진술문의 발화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제기되었던 진술문/수행문의 이분법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이분법을 와해시키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진술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화하는 것이 일종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문 역시 진술문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발화가 진리 조건을 가짐과 동시에 무언가를 행함이라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진술문의 발화를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문들은 수행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부적절함에 노출되어 있다. 화행이라는 것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된 상황 속에서만 적절할 수 있다면, 진술문을 발화하는 것 역시 예외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진술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여러 상황들을 상상해볼 수 있다.

오스틴은 모든 진술문이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참일 수 있는지를 의문시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6각형이다”라는 진술문은, 이 진술문

26) Ibid., p. 53.

이 발화된 의도와 목적, 그리고 맥락과 부합할 경우에는 참일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 예컨대 엄정(嚴正)한 지리학자에게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거짓일 수 있다. 한 진술의 참과 거짓은 단순히 그것이 포함하는 단어의 의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의존적이다.²⁷⁾

동일한 문제를 수행문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진술문이 사실과의 대응(correspondence with facts) 여부에 따라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되듯, 수행문들 또한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측정하다’ ‘알아보다’ ‘발음하다’와 같은 동사에도 ‘옳게’ 또는 ‘그르게’ 라는 부사들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칭찬함이나 비난함에 대해서도 그것이 시의 적절한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²⁸⁾ 진술 행위 외의 여러 행위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사이의 차이를 화행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오스틴의 논의는 사실과 대응하는 언어, 참이나 거짓을 지시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언어임을 주장했던 의미 이론가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다기한 언어 사용의 극히 일부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헤어의 처방주의(Prescriptivism)²⁹⁾

1) 명령문의 논리적 성격

헤어는 넓은 의미의 처방적 언어(Prescriptive Language)속에 명령문과 가치 판단을 모두 포함시킨다.³⁰⁾ 그렇다면 카르납이 지적했던

27) Ibid., p. 143.

28) Ibid., pp. 139-140.

29) ‘prescription’은 ‘규정’, ‘지시’, ‘처방’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데 헤어가 말하는 ‘prescription’은, 일정한 (도덕적)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리는 판단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 ‘prescriptivism’을 ‘처방주의’로 옮긴다.

대로 도덕 판단들과 명령문은 그것이 처방적 언어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해도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셈이다. 또한 명령문의 분석이 헤어에게 중요한 이유는 도덕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치 판단이, “만약 그것이 행동을 지도하는(action-guiding) 것이라면, 명령문을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³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특히 ‘……를 해야 한다’(ought)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도덕 판단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밝힌바, 우리는 도덕 판단들이 명령문과 비슷하다고 해서, 또한 ‘……를 해야 한다’는 도덕 판단이 명령문을 함축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비합리적이고, 특정한 사태와 무관한 것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도덕 판단을 “오도적인 문법적 형식을 지닌 명령문”이라고 간주했던 카르납이야말로 명령문에 대한 부당한 가정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카르납은 우리가 명령을 통해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영향은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인과적인(causal) 영향을 말한다. 그러나 헤어는 카르납이 명령문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telling him to do something) 과정”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getting him to do it) 과정”은 다르다고 지적한다.³²⁾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스틴의 구별, 즉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의 구별을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을 향해 명령문을 발화하는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는 분명히 말이 아닌 다른 강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명령이 발화수반행위라면, 물론 그것에 부수하는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주목되어야 할 것은 그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관습적인) 발화효과적 힘(illocutionary force)일 뿐이다. 헤어가 명령문의 분석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0) Hare, R. M. *Language of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1952, p. 3.

31) Ibid., p. 163.

32) Ibid., p. 13.

또한 명령문은 직설법 문장(indicative sentence)과 문장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헤어에 따르면 “너는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문장과 “문을 닫아라”는 문장은 모두 “가까운 미래에 네가 문을 닫음”(Your shutting the door in the immediate future)이라는 부분을 각각 자신의 일부로 지니고 있다. 헤어는 이 부분을 프래스틱(phrastic)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 문장이 다른 이유는, 프래스틱 뒤에 오는 뉴스틱(neustic) 때문이다. 명령문과 직설법 문장의 경우에 뉴스틱은 각각 “부디”(please)와 “예”(yes)가 된다.³³⁾ 중요한 것은 명령문과 직설법 문장이 사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령문과 직설법 문장의 차이는 동일한 어구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서 비롯하는 차이, 또는 동일한 어구로써 다른 방식의 화행을 수행하는데서 비롯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치어의 서술적 의미

헤어 역시 “가치어들(value-terms)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오직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민감한 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언어의 사용을 통한 접근을 강조한다. 메타언어적 기준으로 유의미성과 무의미성을 재단하려 했던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달리, 헤어는 가치어가 지닌 서술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즉, “정보와 관련된 ‘ 좋음 ’이라는 말의 기능은 ‘ 좋음 ’이 아무런 칭찬하는 기능(commendatory function)을 전혀 지니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³⁴⁾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바로 ‘ 좋음 ’이라는 말이 지닌 ‘ 칭찬하는 기능 ’의 정체일 것이다. 실제로 헤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다고 평가할 때 언제나 그 대상을 칭찬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이 서술적 언어와 가치어가 아무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나아가 ‘ 좋음 ’과 같은 가치어의 일차적 의미가 서술적 의미가 아닌 평가적 의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33) Ibid., pp. 17-18.

34) Ibid., p. 116.

같은 맥락에서 헤어는 무어와 같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 좋음’과 같은 가치어가 순전히 서술적인 언어로 환원될 수 있다는, 따라서 그것들은 자연적 속성에 “수반되는”(supervenient) 또는 “결과로서 일어나는”(consequential) 속성들의 이름일 뿐이라는 견해에 반대한다. 가치어 P가 서술적 언어 Q로 정의될 수 있다면 우리는 ‘x는 P다’라는 말을 통해 ‘x는 Q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의를 통한 번역 속에서 P에 있었던 일정한 의미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번역은 더 이상 옳은 번역이 아니게 되는데, 여기서 상실되는 것이 바로 헤어가 지적한 ‘칭찬하는 힘’이다. 헤어는 오스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defining)과 동일한 종류의 언어적 활동이 아니”³⁵⁾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모든 가치어는 서술적 내용과 독립적으로 칭찬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가치어의 의미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치어의 주된 의미는 평가적 의미다. 헤어는 “평가적 의미는 그에 대해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대상들에 항상적”이라는 이유와, “우리는 모든 종류의 대상에 대해 그 서술적 의미를 바꾸기 위해 단어의 평가적 힘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한다.³⁶⁾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다양한 근거에서 칭찬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평가적 의미이고, 이 평가적 의미가 기존에 대상에 부착되어 있던 서술적 의미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의 사용에 주목함으로써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의 전통적 이분법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은 분명 헤어의 주된 공적이며, 우리는 이것이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헤어는 그 이분법을 충분히 완화했는가?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칭찬함과 정의함이라는 두 가지 다른 화행의 차이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오스틴의 이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양자는 서로

35) Ibid., p. 91.

36) Ibid., pp. 118-119.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며, 해어도 이 점은 인정할 것이다. 문제는 해어가 평가적 의미가 항상적이고, 따라서 서술적 의미에 대해 우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평가적 의미는 서술적 의미의 다양성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는 항상적 의미이기 때문에 일차적이라는 해어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기취에 주장에 따르면, 서술적 의미 역시 항상적일 수 있다.³⁷⁾ 한편, 해어의 견해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한 단어가 오랜 사용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평가적 의미는 상실하고 서술적 의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들을 상당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어 스스로 지적하듯이 일정한 단어들, 즉 ‘깔끔함’, ‘근면함’과 같은 말들의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가 일차적일 수 있다.

물론 도덕의 언어에 고유한 말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아니라 ‘선’, ‘정의’, ‘당위’와 같은 용어들이라는 점에서 ‘ 좋음’이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어의 태도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³⁸⁾ 그러나 ‘ 좋음’이라는 말이 평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이 가치어 일반에 적용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해어는 가치어가 서술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를 마치 변칙적이고 특수한 경우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 경우를 동일한 언어의 다른 사용이라고 간주하는 편이 더 경험에 부합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편화가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곧 살펴보겠지만 해어가 도덕 판단의 본성이 보편화가가능성이라고 말할 때, 도덕 판단이 보편화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서술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 판단에 포함된 가치어가 지닌 서술적 의미가 일차적인 것이든, 이차적인 것이든, 결국 모든 도덕 판단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평가적 의미 못지않게 도덕적 가치어에 본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37) Geach, P. T. "Good and Evil", in Foot, P. (ed.) op. cit., p. 68.

38) 전자의 부류는 흔히 도덕적으로 두꺼운(thick) 용어들, 후자의 부류는 도덕적으로 얇은(thin) 용어들이라 불린다.

3) 도덕 판단의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bility)

헤어는 도덕 판단에 쓰이는 언어의 의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보편화가능성이 언어진다고 본다. 헤어에 따르면, 보편화가능성은 도덕 판단이 서술적 판단과 공유하는 특징인데, 이것은 언급한 바, “도덕 판단이 서술적 의미를 지니는 한에서……서술적 의미를 동반하는 모든 판단들과 공유하는 특징”³⁹⁾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술적 의미가 어떻게 보편화가능성과 연결되는가이다. 헤어에 따르면 하나의 단칭 서술 판단, 예컨대, “‘이것은 붉다’라는 판단은 ‘적합한 관점(relevant respect)에서 이것과 유사한 모든 것은 붉다’라는 판단을 논리적으로 수반한다.” 여기서 “적합한 관점”이란 표현이 지닌 애매함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대상의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대상을 붉다고 판단하게 했는가?’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한 내가 할 대답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어의 논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대상이 지닌 성질 P 때문에 이것은 붉다’라는 판단은 ‘성질 P를 지닌 모든 대상은 붉다’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 판단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앞서 말했듯이 도덕 판단은 보편화가능성 외에 처방적 요소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처방적 요소가 서술적 판단과 도덕 판단의 논리적 성격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헤어에 따르면, 이 요소는 분명히 서술적 판단의 사용을 지배하는 의미-규칙 이상의 것이다. ‘ 좋음’이라는 말을 배우는 사람은, “단지 일정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법뿐 아니라, 특정 종류의 인간을 칭찬하거나, 처방하는 법을 배울 것”, 즉 하나의 “종합적인(synthetic) 도덕적 원칙”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다시 말해, 우리는 도덕 판단을 통해 서술함과 동시에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헤어의 논증은 에이어나 카르납의 정의주의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

39) Hare, R. M. *Freedom and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10. (이하 ‘FR’)

40) Ibid., p. 23.

했던 도덕적 논의의 합리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도덕적으로 좋다, 즉 선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그 대상이나 행위의 어떤 측면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으며, 그는 이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판단의 근거를 언제나 보편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도덕 판단은 명령문과 처방적 의미를 공유하고, 서술적 판단과 보편화가능성을 공유한다. 도덕 판단은 대상이 지닌 성질과 어느 정도 수반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는 헤어의 주장이 자연주의자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도덕 판단은 서술적 판단과 달리, 문제 상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처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술적 판단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물론 헤어에게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이다. 따라서 도덕 판단은 서술 판단과 마찬가지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⁴¹⁾ 그러나 헤어는 도덕 판단이 지닌 어느 정도의 서술적 의미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한 보편화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도덕 판단의 합리적·이성적 성격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 바로 이 점 때문에 헤어 역시 비인지주의자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헤어가 도덕 판단의 합리성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관, 즉 도덕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직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화가능성이 객관성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화는 결국 특정한 주관의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가 서로 대립하는 판단들을 각각 보편화가능하다고 여길 때, 보편화가능성 논제만으로는 이 상충하는 판단들의 옳고 그름을 가늠할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헤어 자신도 보편화가능성 논제가 의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논리적 논제’(logical thesis)일 뿐, 실제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제공할 수 있는 논제는 아님을 밝힌다. 2.3.2.에서 문제 삼았던 도덕적 대립의 문제는 헤어의 논의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헤어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고, 자신의 도덕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3. 화용론적 의미 이론과 처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화용론적 의미 이론을 통한 접근은 유의미성의 기준을 관찰과 경험에 두었던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보다 훨씬 더 열린 의미 개념을 제시한다. 화행의 개념이 함의하듯, 언어는 마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며 유의미성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증주의자들의 의미 이론이 논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포섭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검증주의자들이 이론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의 발화와, 이론적으로 무의미하며 정의적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문장의 발화는 모두 다양한 언어 사용의 일부, 또는 무수한 발화수반적 행위의 두 가지 경우(오스틴/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어나 도덕 판단이 지닌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의 날카로운 이분법 역시 완화된다. 실제로 우리의 언어 사용에 주목한다면 동일한 언어조차 맥락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그 자체로 평가적인 언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된다. 물론 화용론적 의미 이론이 이러한 이분법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히 결정짓지는 않는다. 헤어는 언어의 사용에 주목하면서도, 가치어가 도덕적 맥락에서 쓰일 때는 언제나 평가적 의미, 즉 칭찬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동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주의가 우리의 도덕 판단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직관을 외면한다는 점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이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화용론적 의미 이론과 헤어의 처방주의는 이러한 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처방주의에 고유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헤어는 도덕 판단이 지닌 처방적 성격 때문에 그것이 사실 판단과 다른 논리적 구조를 지니며, 따라서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처방주의 역시 정의주의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처방하는 것은 곧 그 대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상

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 판단에는 진리 조건이 없다는 논제와 그것이 태도를 표현한다는 논제 때문에 처방주의 역시 프레게-기취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앞서 암시된 바, 화용론적 의미 이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특정한 맥락에서 한 문장을 통해 ‘진술하기’라는 화행을 수행한다면, 그 문장은 설령 가치어를 포함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은 처방주의에 대한 비판이지, 화용론적 의미 이론 전반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가치어에 서술적인 의미가 거의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도덕 판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또는 맥락에 따라서 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렇다면 헤어는 왜 굳이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부인하는가? 만약 헤어가 “우리가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말할 때 태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 의견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문자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쉘이나 퍼트넘(H. Putnam)이 지적하는 “화행 오류”(speech-act fallacy)에 빠지게 된다.⁴²⁾ 하나의 발화에 나타난 표현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서로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 처방주의와 달리 화용론적 의미 이론은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화용론적 의미 이론가들 역시 프레게-기취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화용론자들에 따르면 한 문장은 그것이 ‘진술하기’라는 화행을 수행할 경우에만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 문장이 논리적 연결사로 연결된 복합 문장으로 삽입된 문맥에서는 어떤가?

“‘p or q’에 대한 진리-함수적 설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오직 [전체] 선언문만이 주장된 문맥에서는 ‘p’와 ‘q’로 나타난 각각의

42) Blackburn, S. op. cit., pp. 169-170.

선언지가 '진술을 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체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함수가 될 진리치를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⁴³⁾

논리적 연결사로 연결된 전체 문장의 진리치는 그 부분 문장의 진리치에 의존한다. 이것이 진리치의 조합성(compositionality)이다. 기취의 원래 논점은, 명제가 주장되어 나타나든, 주장되지 않은 채 나타나든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점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치의 조합성을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다. 화용론적 의미 이론은 개별적인 발화가 어떤 맥락에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위와 같이 복합적인 구절 속으로 포함될 때 전체 문장의 진리치가 어떻게 기초 문장의 진리치에 의존하는지를 쉽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데, 조합성은 진리치뿐만이 아니라 언어 일반에도 해당되는 특징이다. 하나의 언어에 숙달한 사람은 유한한 수의 어휘와 공리들을 기초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이해하고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언어의 조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즉 문장의 진리치뿐 아니라, 문장의 다른 의미 역시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에 의존함을 보일 수 있는 의미 이론을 지니고 있다면, 이 의미 이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합문장들에 대한 진리-함수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화용론적 의미 이론이 지니는 장점들을 인정하면서, 일단 그것을 유보한 후, 언어의 조합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의미 이론을 모색할 것이다.

43) Geach, P. T. "Asser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4, 1965, pp. 452-453.

IV.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도덕 실재론

1.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의 기본적인 테제는, “[문장에] 진리 조건을 주는 것은 그 문장에 의미를 주는 한 방법”⁴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프레게(G. Frege)나 전기 비트겐슈타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독창성은 바로 그가 언어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의미 이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데 있다.

언어의 본성은 무엇인가? 데이빗슨은 언어가 무엇보다 “배울 수 있는”(learnable)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그것의 생산성 또는 창조성이다. 우리가 유한한 수의 어휘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수의 규칙들을 일단 숙달한 다음에는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생산해내고,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만약 언어에 이러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이미 숙달된 규칙들을 통해 잠재적인 문장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휘와 문장들을 익혔다고 해도 그 언어 전체는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언어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 얼마나 많건, 우리가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문장들은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의 언어 습득 과정에 부합하지도 않는 결론이며, 나아가 언어에 관한 인간의 완전한 이해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의미 이론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우선 의미 이론은 “그 언어 내의 [각각의] 문장들의 의미에 대한 구성적인 설명

44) Davidson, D.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 24.

(constructive account)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⁴⁵⁾ 이것은 만족스러운 의미 이론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인 설명’이란 “문장들의 의미가 단어들의 의미에 어떻게 의존하는지”(ITI, 17)에 관한 설명이다. 문장들의 의미가 그 문장의 부분들의 의미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일 수 없다면, 앞서 말한 언어의 특징, 즉 생산성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조건을 밀러(A. Miller)는 “의미 이론은 고려되는 언어의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 ‘의미를 주는’ 정리(theorem)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외연적 적합성의 조건(Extensional Adequacy Condition)과 “그 이론은 조합적이어야 한다”는 조합성 조건(Compositionality Condition)으로 정식화한다. 한 이론은 어떤 경우 조합적인가? 한 의미 이론은 (i)그것이 유한한 수의 공리들을 지니고 (ii)각각의 의미를 주는(meaning-giving) 정리들이, 이러한 공리적인 기반으로로부터, 고려되는 문장의 의미론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구성적이다.⁴⁶⁾

데이빗슨의 분석을 주도하는 다른 하나의 경향은, 바로 의미를 특정한 실재(entity)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유명론적(nominalistic) 경향이다. 데이빗슨은 문장의 의미가 그것의 부분들의 의미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의미를 지시체(reference)에 마주세우는 개념이나 의미가 실재라고 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⁴⁷⁾ 그렇다면 왜 의미를 일종의 실재로 간주하면 안 되는가? 데이빗슨이 보기에, 우리

45) Ibid., p. 3.

46) Miller, A. *Philosophy of Languag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8, pp. 247-248. 밀러는 이 두 조건에 “의미 이론은, 우리에게 그 언어의 화자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석 조건(Interpretation Condition)을 덧붙인다. 이것은 자비 원리(principle of charity)를 그 규제적 원리로 삼는 원초적 해석(radical interpretation) 이론과 관련된 조건이다. 밀러가 보기에 이 조건은 언급된 두 조건만을 따를 때 데이빗슨의 이론이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두 조건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Ibid., pp. 263-273 참조.

47) Davidson, D. op. cit., pp. 70-71.

가 문장의 각 부분에 일정한 실재를 할당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려한다면, 도대체 이러한 의미들로부터 어떻게 문장의 의미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데이빗슨의 과제는 해당 언어 내의 각각의 모든 문장에 의미를 주는 정리들을 산출하면서도 의미에 해당하는 별도의 실재를 요청하지 않는 의미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문장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정리들은 어떤 형태를 지닐 수 있는가? 일단 's는 p를 의미한다'(s means p)라는 형태를 지닐 수는 없다. 이 정리에서 's'가 문장의 이름으로 대체되고, 'p'가 그 문장의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체된다면, 결국 의미는 한 문장에 상응하는 별도의 실재로서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데이빗슨의 대안은 무엇인가?

(T) s는 p인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s is true if and only if p)

이 정리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술어에는 별도의 의미론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한 언어 내의 모든 문장들에 의미를 줄 수 있게 된다. 이 정리에서 's'는 한 문장의 이름으로 대체되고 'p'는 그 문장 자체나 번역된 문장으로 대체된다.⁴⁸⁾ 이렇게 되면, '참이다'라는 술어가 적용되는 문장들은 아무런 내포적 의미를 도입함 없이 동일한 외연을 지니며, 이 문장들은 명백히 (언어 L에서) 참인 문장들이다.

"언어 L에 대한 의미 이론은 그것이 L-안에서의-참(truth-in-L)의 회귀적(recursive) 정의를 포함할 경우 문장들의 의미가 어떻게 단어들의 의미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ITI, 23)⁴⁹⁾ 데이빗슨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정의를 통해, 각 문장들이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론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48) 의미 이론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상언어이고, 의미 이론을 주는 언어는 메타언어인 바,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장의 번역이 일어나는 경우는 메타언어와 대상언어가 다른 경우일 뿐이다.

49) Ibid., p. 23.

서도 모든 문장에 의미를 줄 수 있다. 결국 진리 이론이 의미 이론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2.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 문제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은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에 직접적인 함축을 지닌다. 이것은 우선, 그의 의미 이론이 자연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각각의 일상 언어 범주에 해당하는 논리 언어 범주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 이론을 구축했던 프레게와 달리, 데이빗슨의 의미 이론은 애매모호한 일상 언어에 대해서도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일단 논리적 문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면, ‘바르도는 선하다’(Bardot is good)와 같은 문장들은 진리 정의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기술적 용어와 평가적 용어의 심각한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도덕적 또는 평가적 문장들이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다 있다고 주장할지라도(가령, 그것이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도는 선하다’는 바르도가 선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라는 문장에 난색을 표시해서는 안된다.”⁵⁰⁾

앞서 밝힌바, 대상 언어(여기서는 ‘선’)가 지닌 애매함은 번역의 과정에서 그대로 메타언어로 전이되지만, 그것이 진리의 회귀적 정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T-정리의 쌍조건문을 통해 “살인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도덕 판단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진리의 정의가 회귀적이기 때문에, 또한 문장 너머의 어떤 사실과 대조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 판단은 여기서 원래의 문장이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50) Ibid., p. 31.

앞서 언어가 근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임을 보았다.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지닌 구성성 조건에 따르면, 우리는 한 문장의 내포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 문장의 진리 조건, 즉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과 진리 조건을 제시하는 일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플래츠(M. Platts)에 따르면, “한 화자는, 설령 그것이 그의 인지적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문장들의 진리 조건을 알거나 포착할 수 있다.”⁵¹⁾

앞서 우리는 1장에서 도덕 판단이 지니는 정의적 의미에 주목한 것을 정의주의가 지니는 한 가지 의의로 파악했다. 그런데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은 도덕 판단이 지닌 정의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도덕 판단이 정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에 별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한 문장에 진리 조건을 주는 것은 그 문장의 의미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정의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비교해보면 해답은 명백해진다.

우리가 사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순수히 인지적이지만 많은 다른 정신적 태도들을 더불어 표현하지만, “이러한 태도들은 말해진 것의 문자적(literal) 진리-조건에 개입하지 않는다.”⁵²⁾ 도덕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도덕 판단에 아무리 도덕적 감정들, 즉 인지적이지 않은 태도들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장의 진리 조건과는 무관하다.

한편 정의주의자들에게 남아있었던 문제, 즉,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도덕적 불일치를 설명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 해도 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플래츠는 여기서 도덕적 개념들이 지닌 “의미론적 깊

51) Platts, M. *Ways of Meaning*, Cambridge: MIT Press, 1997, p. 245. (이하 ‘WM’)

52) Ibid., p. 257.

이”(semantic depth)를 언급한다. 도덕적 개념들을 포함한 문장의 소박한(austere) 진리-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의 시작점일 뿐이며, 일단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는 그 도덕적 개념들의 개별적 예화(instantiation)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앞서 언급한 바, 언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 지닌 인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데 이른다.

그렇다면 도덕적 불일치는, 도덕적 개념에 대해 개개인이 지닌 감수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도 부합한다. 아무도 모든 사람의 도덕적 감수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주요한 도덕적 개념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내놓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자적 진리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이후에는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의 발달 정도에 따라 이해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이러한 도덕적 개념을 달리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을 포함한 소박한 T-문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밝혀지듯이, 한순간도 우리가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제 정의주의자와 화용론자 모두에게 공통된 공격이었던 프레게-기류 문제를 살펴보자.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통해 한 언어 내의 모든 문장에 진리 조건을 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진리 조건으로 간주할 때, 진리 조건은 그것이 주장되건 주장되지 않건 동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포함한 논변의 타당성 모두가 하나의 원리로 설명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임시변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진리 조건 문제와 도덕 실재론의 가능성

우리는 앞 절에서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통한 접근을 통해 도

53) Ibid., p. 249.

54) Ibid., p. 262.

덕 판단의 진리 조건 문제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중요하다.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는 주장은, 정의주의자들 나아가 비인지주의자들을 논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며, 나아가 도덕 실재론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통해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입론을 도덕 실재론으로 발전시키는 어렵다고 본다.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는 주장은 도덕 실재론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도덕 실재론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사실(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존재론적인 함축을 지닌 주장이며, 따라서 그것은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는 주장보다 강한 주장이다. 예컨대, 정원규는 실재론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도덕적 주장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을 때 참이거나 거짓이다.
- 2) 몇몇 도덕적 주장들은 문자 그대로 참이다.
- 3) 도덕적 사실이 존재한다.

이들 중 1)과 2)는 세이어-맥코드(G. Sayre-McCord)의 기준으로, 각각 도덕적 문장들이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들 중에서 적어도 몇 개는 실제로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을 인정하면서도 2)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즉 도덕적 주장들은 진리 조건을 지니되 모두가 오류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과 같은 존재론적 조건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도덕 실재론을 규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도덕 실재론의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⁵⁵⁾

도덕 실재론이 어떤 존재론적 범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3)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도덕 실재론과 연결시키는 어려워진다. 앞서 밝

55) 정원규, 「도덕실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哲學論究』 제22호, 1994, pp. 96-97.

한바, 데이빗슨은 한 문장의 진리를 문장과 사실과의 대응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도덕 판단의 진리치가 도덕적 사실과의 대응 여부를 통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따를 수 있는 형이상학적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장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반대로 도덕 실재론과 같은 존재론적 논의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⁵⁶⁾

그러나 도덕 실재론의 존재론적 함축을 인정한다고 해서 꼭 3)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덕 실재론이 요구하는 존재론적 범주가 굳이 도덕적 사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이라는 개념이 그리 자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론적 범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도덕적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적 사실과 같은 종류의 사실인가?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관습을 지닌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 사실인가? '사실'의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이상 3)의 기준은 공허하다.

또한, 3)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도덕적 사실이 지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가 조건, 예컨대 '도덕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와 같은 제 4의 조건까지 덧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가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도덕 실재론은 무척 강한 형태의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3)의 기준은 도덕 실재론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실재론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열린 것으로 남는다. 이 관계를 충분히 해명하는 것은 또 다른 지면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56) 이에 비해 플래츠는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채택하면서도 도덕적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이 직관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점에서 플래츠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데이빗슨의 이론이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사실이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인정하면서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통해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별 의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단 도덕 판단의 진리 조건이 확보된다면, 정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논의 영역을 통상적으로 구획하는 방식, 즉, 사실과 가치/믿음과 태도/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이론적 유의미와 이론적 무의미의 이분법적 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V. 결론

본고는 도덕 판단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 그것의 의미에 대한 물음인 이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어 일반에 대한 의미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본고에서 선택한 의미 이론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의미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윤리학적 입장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의미 이론이 해당 윤리학 이론의 성격을 인과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결론은 결코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이론이 지닐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력일 뿐이다. 예컨대, 검증주의적 의미 이론을 취하면서 도덕 판단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거나, 이론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다양한 발화수반행위에 주목하는 화용론적 의미 이론을 선택하면서, 도덕 판단이 아무런 서술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택하기는 어렵다. 비인지주의자로 분류되는 헤어가 도덕 판단을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해명하고자 노력했던 까닭 역시 그가 일상적인 도덕적 담론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의미 이론과 윤리학 이론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미 이론과 윤리학 이론의 내적 연관을 고찰함은 물론, 현실적인 도덕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이론이 지니는 설명

력을 비교하고자 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의 도덕적 담론을 지배하는 두 가지 자명한 직관을 가정했다. 하나는 도덕 판단이,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다른 판단들과 달리 화자의 태도 또는 동기와 직접적 연관을 맺는다는 가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덕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는 직관이었다. 올바른 이론은 이 두 직관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이론을 통해 이 모두를 설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직관을 동시에 해명할 수 있는가? 본론에 드러난 각각의 의미 이론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통한 접근을 통해 후자의 직관을 설명하되, 화용론을 통해 전자의 직관을 설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다.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화용론적 의미 이론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조건은 한 문장이 지닌 의미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 진리 조건은 의미의 조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기본적인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이 이론이 설명하지 않는 의미의 나머지 부분을 화용론을 통해 논리적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윤리학적 논의는 흔히 반실재론/실재론, 비인지주의/인지주의의 맥락에서 진행되며, 의미 이론을 통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 이론을 주도적인 논의의 틀로 삼아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적인 논의의 틀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이것은 본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 이론과 윤리 이론 사이에 일반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 나아가 의미 이론을 통한 접근이 메타윤리학의 주요 주제에 시사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본고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정원규, 「도덕실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哲學論究』, 제22호, 1994.
-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8.
- L.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4.
-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 월리엄 K. 프랑케나 지음, 황경식 옮김,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3.
- 아이안 해킹 지음, 선혜영·황경식 옮김, 『왜 언어가 철학에서 중요한가?』, 서광사, 1987.
- Carnap, R. "The Elimination of Metaphysics Through Logical Analysis of Language", in Ayer, A. J. (ed.) *Logical Positivism*, Illinois: The Free Press, 1959.
- Geach, P. T. "Asser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4, 1965.
- _____, "Good and Evil", in Foot, P. (ed.) *Theories of Eth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Schlick, M. "What is the Aim of Ethics?", in Ayer, A. J. (ed.) *Logical Positivism*, Illinois: The Free Press, 1959.
- Searle, J. R. "How to Derive 'Ought' from 'Is'", in Foot, P. (ed.) *Theories of Eth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Stevenson, C. L. "The Emotive Meaning of Ethical Terms", in Ayer, A. J. (ed.) *Logical Positivism*, Illinois: The Free Press, 1959.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Ayer, A. J. *Language, Truth and Logic*,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5.
- Blackburn, S. *Spreading the Wor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Carnap, R. *Philosophy and Logical Syntax*, New York: AMS Press, 1979.

- Davidson, D.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Gibbard, A. *Wise Choices, Apt Feeling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Grayling, A.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Logic*, Oxford: Blackwell, 1997.
- Hare, R. M. *Language of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1952.
- _____, *Freedom and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Lovibond, S. *Realism and Imagination in Ethics*, Oxford: Blackwell, 1983.
- Mackie, J.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McNaughton, D. *Moral Vis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Miller, A. *Philosophy of Languag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Metaethics*, Cambridge: Polity, 2003.
- Moore, G. E.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Ogden, C. K. &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1972.
- Platts, M. *Ways of Meaning*, Cambridge: MIT Press, 1997.
- Quine, W. V. O.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New York: Harper & Row, 1963.
- Searle, J. R.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Wittgenstein, L.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 by C. K. Ogd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1.